

교육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과
부모의 사회적 지지,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및 진로성숙의 관계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areer Preparation Behavior, Parental
Social Support,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and the Career
Maturity of the Pre-Service Elementary School Teachers

금지현(Jiheon Keum)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a causal relationship in the career preparation behavior, parental social support,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and the career maturity of the pre-service elementary school teachers. A total of 374 questionnaires were used for data analysis, excluding the 23 copies deemed insincere in response. To ensure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questions, technical statistics of the frequency, ratio, average, standard deviation, skewness, and kurtosis via PASW 18.0, item-total correlation, the totality, and the reliability analysis. The structural analysis via AMOS 7.0 in the bootstrapping method was undertaken to perform the path analysis among the variables and to assess the suitability of the model. The findings of the study led to the following conclusions: First, the causal model for the career preparation behavior, parental social support,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and the career maturity of the pre-service elementary school teachers is suitable to empirical analysis on research variables. Second, the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of pre-service elementary teachers has direct effect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positively. Third, parental social support of the pre-service elementary teachers has indirect effects on the career preparation behavior positively.

주제어(Keywords) : 교육대학생(pre-service elementary school teacher), 진로준비행동(career preparation behavior), 부모의 사회적 지지(parental social support), 진로결정자기효능감(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진로성숙(career maturity)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교육대학교는 1990년대 후반, IMF 사태를 거치면서 높은 취업률과 안정적인 공무원 신분에 따른 매력으로 입학 성적과 경쟁률이 점차 높아졌다. 초등학교 교사에 대한 남학생들

의 관심도 높아졌고, 일반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다니던 대학을 자퇴하거나, 이미 직장인이 된 기졸업자들조차도 직장을 그만두고 교육대학교에 다시 입학하는 일이 많아졌다.

초등교육과의 취업률이 2004년에는 95.6%로 전공취업률 순위 2위를 차지하였으나 2011년 10개 교육대학교 졸업생의 취업률은 45.2~62.6%에 그치고 있다[12, 25]. 교원 임용

Corresponding Author : Jiheon Keum, Center for Air and Correspondence High Schools,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35, Baumeo-ro 1-gil, Seocho-gu, Seoul (Umyeon-dong), 137-791, Korea Tel: +82-2-3461-0964, Fax: +82-2-579-4483, E-mail: keumjh99@kedi.re.kr

© Copyright 2012,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All rights reserved.

률이 낮을 때 사범대학 학생들은 진로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데[1] 이러한 현상이 교육대학까지 확대되고 있다.

교육대학교 졸업생의 낮아진 임용 문제는 초등학교 현장까지 그 문제가 계속 이어진다. 연말에 있을 임용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던 재수생들이 학교를 그만둠으로써, 2학기에는 기간제 교사의 수급이 어려워진다. 학부모들은 영어와 체육과목 담당교사, 그리고 고학년 담임 교사를 고령의 퇴직한 교사보다 젊은 교사를 선호한다. 하지만 2학기에 젊은 기간제 교사들이 줄어들어 따라 그 자리를 고령의 퇴직한 교사들이 맡게 되는데, 이것은 학교 입장에서나 교사 개인 입장에서든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그나마 고령의 퇴직한 교사들로 빈자리를 채운다 해도 수적으로는 역부족이다.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는 기간제 교사의 나이 제한을 교원의 정년인 62세를 넘어 65세까지 확대하였다. 이어서 1학기가 되면 임용시험에 떨어진 재수생들이 몰려 기간제 교사 자리가 부족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대학생들은 취업에 어려움을 느낄 때 자신의 진로를 준비하기 위하여 여러 행동들을 보인다. 자신의 진로와 관련한 인지나 태도의 차원이 아닌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행위를 진로준비행동이라고 한다. 즉, 합리적이고 올바른 진로결정을 위해서 수행해야 하는 행동과 진로결정이 이루어진 이후에 그 결정사항을 시행하기 위한 행위 등을 모두 일컫는다. 진로준비행동은 개인이 올바른 진로결정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결정된 진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얼마나 충실하게 행동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지로 평가할 수 있다[13].

낮아진 교사 임용률로 인해 신입생 입학 경쟁률이 떨어지고, 교육대학 및 초등학교 교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변화했으며, 동아리 및 학생회 활동의 위축으로 학생자치의 실종 등과 같은 변화가 찾아왔다. 그리고 교육대학생의 진로준비 행동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임용시험 준비를 위하여 학점 취득에 더 많은 관심을 쏟고 있으며, 학교공부 외에 영어능력 시험과 컴퓨터 자격증 시험을 준비한다. 3~4학년에는 많은 학생들이 임용 대비 학원을 다니거나 인터넷 강의를 수강하고 있으며 동아리를 대신하여 임용시험을 대비하는 소규모의 스터디 활동이 늘어났다.

진로준비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혀지고 많이 연구되어 온 변인은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이다.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자기효능감 이론과 진로 발달을 접목하여 만들어 낸 개념으로 일반적으로 진로와 관련된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에 대한 신념으로 정의된다[24].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개인이 진로결정을 할 때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여러 연구들을 통해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5, 10, 15, 16].

진로성숙은 Super와 Crites에 의해 발달되었던 개념으로 [7, 8, 23] 진로성숙도, 직업성숙, 진로태도성숙, 진로인식 등과 혼용해 사용되기도 한다. 진로성숙은 자아에 대한 이해, 일과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하여 자기 자신의 진로를 계획하고 선택하는 과정이며 개인이 같은 연령대나 발달 단계에 있는 집단 내에서 발달과업 수행정도에 따라 차지하게 되는 상대적 위치를 의미한다[20].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진로성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으로 연구가 되어 왔고 다른 변인들과 진로성숙의 관계에서 매개변인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하는 것으로 밝혀졌다[5, 11, 15, 19]. 대학생들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19, 22]. 따라서 진로준비행동은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의 영향을 받으며,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진로성숙을 매개로 하여 진로준비행동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된다.

교육대학교 설립 목적에 따라 학생들의 대부분은 초등학교 교사가 되기 위한 동기를 가지고 진학하고 이러한 동기를 가지게 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은 가족이다. 그리고 진로이론들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진로선택 및 진로발달에 관한 주요 이론들은 그 정도는 다르지만 청소년의 진로 발달에 미치는 부모의 영향에 대해 공통적으로 인정하고 있다[4]. 부모의 지지를 받고 입학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학생들의 생활과 진로에 대한 인식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부모 관련 변인으로 많이 연구된 것이 부모의 사회적 지지이다.

부모의 사회적 지지에 대해 관심을 갖는 이유는 사회적 지지에 대한 개인 인식의 정도가 개인의 진로발달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6]. 사회적 지지란 사회적 관계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모든 형태의 긍정적인 자원을 말하는데 주로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주어지며, 가족 중에서도 부모가 제공하는 사회적 지지가 자녀의 진로발달과정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고 보고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가족중심적인 문화에서는 부모의 관심과 지지가 자녀들의 진로발달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 이는 연구 결과들로 증명이 되었는데 부모의 사회적 지지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5, 15], 진로성숙[15], 진로준비행동[22]에 각각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진로성숙과 부모의 사회적 지지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매개 효과를 보였다[15].

따라서 교육대학생의 입학 동기를 고려하여 부모와의 관계 그리고 진로 이론과 진로준비행동을 설명할 때 중요한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 등의 변인들 간의 인과적 관계 분석은 교육대학생들의 현재 진로의 어려움과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이해, 그리고 학생의 진로 지도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교육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과 부모의

사회적 지지,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및 진로성숙의 관계를 분석하는 데 있으며, 위와 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정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1. 교육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과 부모의 사회적 지지,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및 진로성숙에 관한 가설적 인과모형은 인과관계를 예측하기에 적합한가?

1-1. 교육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과 부모의 사회적 지지,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및 진로성숙에 관한 가설적 인과모형에서의 측정변인들은 정규성과 타당성을 확보하였는가?

1-2. 교육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과 부모의 사회적 지지,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및 진로성숙에 관한 가설적 인과모형의 적합도는 인과관계를 예측하기에 적합한가?

연구문제2. 교육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과 부모의 사회적 지지,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성숙의 직접적인 영향 관계는 어떠한가?

2-1. 교육대학생의 부모의 사회적 지지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성숙 및 진로준비행동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2-2. 교육대학생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진로성숙 및 진로준비행동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2-3. 교육대학생의 진로성숙은 진로준비행동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3. 교육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과 부모의 사회적 지지,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성숙의 간접적인 영향 관계는 어떠한가?

3-1. 교육대학생의 부모의 사회적 지지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을 매개로 진로준비행동에 간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3-2. 교육대학생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진로성숙을 매개로 진로준비행동에 간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3-3. 교육대학생의 부모의 사회적 지지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진로성숙에 간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2. 연구의 한계

이 연구는 10개의 교육대학교 중 A교육대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 전체를 표집하였고, 학년 초에 실시된 점을 고려할 때 연구결과를 10개 교육대학교와 3개 종합대학의 초등교육과 재학생 전체로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II.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부모의 사회적 지지가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성숙은 진로준비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인과관계, 부모의 사회적 지지가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을 매개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인과관계, 부모의 사회적 지지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진로성숙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인과관계를 종합하여 가설적 모형을 설정하였다 (Figure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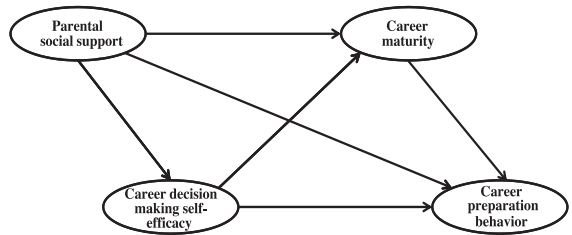


Figure 1. Research model.

2. 연구 대상

이 연구의 모집단은 우리나라 10개 교육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부 학생 전체이며, 2010년 4월 기준하여 현재 교육대학 재적 학생 수는 20,241명이다[12]. 교육대학은 심화과정별 고른 표집과 연구자의 조사 가능성을 고려해 군집표집을 활용하여 A교육대학교 2학년 학생 전체를 표집하였다. 표집한 학생 수는 2011년 입학생 총 435명이다.

3. 조사 도구

진로준비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Kim이 대학생을 대상으로 개발한 측정도구의 문장을 일부 수정한 Kang의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11, 13]. 총 1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Jin의 연구에서 타당한 것으로 나타난 홀수문항과 짝수문항의 두 하위영역의 구분을 따른다[10]. 응답 양식은 5단계 리커트 척도이며, 이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797이었다.

부모의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기 위해 Park의 사회적 지지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지지원은 부모로 한정하고 정서적 지지 7문항, 정보적 지지 6문항, 평가적 지지 6문항, 물질적 지지 6문항의 부모의 사회적 지지 각 25문항으로 총 50문항으로 구성되었다[21]. 응답 양식은 5단계 리커트 척도이며, 이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969이었다.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해 Jin의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10].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Scale의 간편형 버전인 CDMES-SF[3]은 우리나라 대학생들

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번역 및 문장이 일부 수정되어 사용되어 왔고[17, 19] Jin의 측정도구는 Lee의 문장을 일부 수정한 것으로 자기평가, 직업정보수집, 목표설정, 계획수립, 문제해결의 각 5문항씩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10, 17]. 연구대상인 교육대학교 학생들에게 적합하지 않은 목표 설정 영역의 2번 문항(나는 선택 가능한 전공들 중에서 원하는 전공을 선택할 수 있다)을 제외한 24문항이 연구에 사용되었다. 응답 양식은 5단계 리커트 척도이며, 이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886이었다.

진로성숙은 흔히 태도와 능력의 영역으로 구분되는데 이 연구에서는 태도에 한정한다. 진로성숙을 측정하기 위하여 Lee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개발한 진로태도성숙 질문지 (career attitude maturity inventory)를 대학생에게 적절하게 수정한 Kim의 측정도구의 문항수를 줄이고 수정·보완한 Jeong의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9, 14, 18]. 이 측정도구는 결정성 6문항, 목적성 7문항, 확신성 4문항, 독립성 4문

항, 준비성 5문항의 총 2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이 연구에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목적성의 계수가 .230으로 낮게 나타나 이를 제외한 19문항이 최종 분석에 활용되었다. 응답 양식은 5단계 리커트 척도이며, 이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806이었다.

4. 자료의 수집 및 분석

자료의 수집은 2012년 3~4월 중에 이루어졌으며 연구자가 실과 관련 수업 중에 직접 배포 및 수집하였다.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한 심화과정을 제외한 397명이 질문지에 응답하였다. 응답자 중 재수강생, 부모의 사회적 지지 측정도구에서 한 부모만 응답, 불성실한 응답, 허구문항에 잘못 응답, 한 문항 이상 응답하지 않는 등 23명의 사례를 제외한 374명이 최종 분석에 활용되었다.

자료의 분석은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PASW 18.0을 활용한 빈도, 비율,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

Table 1. Assessment of normality and descriptive statistics for all variables

Variables	M	SD	Minimum	Maximum	Range	skewness (t)	kurtosis (t)
Career preparation behavior							
Career preparation behavior1	26.40	4.078	12	40	8~40	-.033 (-.258)	.366 (1.445)
Career preparation behavior2	24.98	4.138	14	40	8~40	.114 (.900)	.333 (1.315)
Parental social support							
Paternal social support	94.33	15.340	40	125	25~125	-.615 (-4.855)	.074 (.290)
Maternal social support	97.96	13.795	58	125	25~125	-.564 (-4.451)	-.110 (-.433)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Occupational information	18.24	2.449	11	24	5~25	-.096 (-.761)	.005 (.022)
Goal selection	14.01	2.402	8	20	5~20	.043 (.336)	-.008 (-.033)
Planning	17.95	2.768	9	25	5~25	-.056 (-.443)	.371 (1.465)
Problem-solving	17.29	2.773	9	25	5~25	.076 (.603)	.264 (1.041)
Self-appraisal	17.99	2.861	8	25	5~25	-.294 (-2.324)	.243 (.960)
Career maturity							
Decisiveness	21.28	3.860	10	27	6~30	-.682 (-5.386)	-.189 (-.748)
Reliability	15.46	2.407	8	20	4~20	-.097 (-.767)	-.091 (-.359)
Independence	15.91	2.548	8	20	4~20	-.269 (-2.12)	-.050 (-.198)
Preparation	18.80	2.658	12	25	5~25	.133 (1.049)	-.094 (-.372)

Table 2. Correlation among the thirteen variables (N = 374)

Variable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 Career preparation behavior1	-												
2. Career preparation behavior2	.768**	-											
3. Paternal social support	.159**	.224**	-										
4. Maternal social support	.141**	.258**	.842**	-									
5. Occupational information	.496**	.474**	.242**	.267**	-								
6. Goal selection	.392**	.471**	.342**	.320**	.485**	-							
7. Planning	.523**	.567**	.358**	.364**	.607**	.676**	-						
8. Problem-solving	.350**	.378**	.270**	.261**	.335**	.496**	.503**	-					
9. Self-appraisal	.426**	.417**	.292**	.292**	.477**	.690**	.629**	.418**	-				
10. Decisiveness	.227**	.203**	.251**	.252**	.311**	.458**	.435**	.023	.387**	-			
11. Reliability	.289**	.310**	.356**	.367**	.301**	.474**	.558**	.353**	.480**	.341**	-		
12. Independence	.159**	.161**	.230**	.203**	.184**	.487**	.289**	.293**	.346**	.280**	.373**	-	
13. Preparation	.487**	.495**	.284**	.272**	.420**	.392**	.447**	.322**	.387**	.235**	.348**	.296**	-

**p <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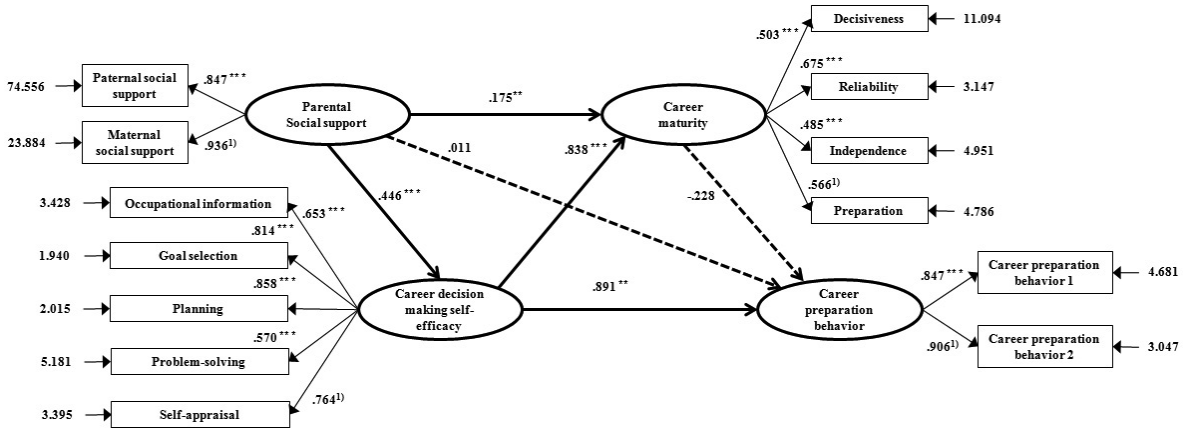


Figure 2. Final structural model. ¹⁾ Regression weight was fixed at 1, $\chi^2 = 275.854(p = .000, df = 59)$, CFI = .909, GFI = .898, IFI = .909, NFI = .887

도 등의 기술통계, 상관관계, 신뢰도분석을 실시하였다. AMOS 7.0을 활용하여 변인 간 경로분석과 모형 적합도를 파악하기 위해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실시하였고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Bootstrap 방법을 활용하였다. 모형의 적합도 판단 기준은 χ^2 , CFI, GFI, IFI, NFI를 활용하며 판단 기준은 .90으로 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측정변인의 정규성 및 타당성 분석

이 연구의 분석에 사용된 변인인 진로준비행동, 부모의 사회적 지지,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성숙 변인에 대한 측정변인의 기술적 통계량과 정규성을 분석하였다. 왜도 값과 첨도 값이 2를 넘는 측정변인은 없어 정규성은 모두 만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 구조방정식 분석에는 정규성을 가정하는 최대우도법(ML)을 활용하였다.

측정변인들간의 상관관계에서 진로준비행동, 부모의 사회적 지지 및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측정변인들 간에는 모두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진로성숙의 결정성은 진로준비행동의 문제해결과 유의미하지 않은 상관관계를 보였고 그 외 진로성숙의 모든 측정변인들은 다른 변인들과의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Table 3).

2. 가설적 모형의 적합도 분석

이 연구에서 설정한 교육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과 부모이 사회적지지,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및 진로성숙에 관한 가설적 인과모형이 실증적 자료 예측에 적합한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적합도를 분석하였다. 모형의 전반적인 적합도를 평

가할 수 있는 절대적합지수 중 χ^2 값은 275.854($p = 0.000$)로 나타났는데, χ^2 값은 표본의 크기(200개 이상)와 다변량 정규성에 민감하기 때문에 표본의 크기가 크고 측정변인이 많을 때 모형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어 이런 상황에서는 적절한 평가지수가 되지 못한다[2]. 따라서 χ^2 값은 적합도로 판단하지 않았고, CFI와 IFI는 .909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GFI는 .898, NFI는 .887로 기준치에 거의 근접한 것으로 나타나 연구자가 설정한 가설적 모형은 적합한 모형으로 판명되었다(Figure 2).

3. 변인간 영향 관계 분석

교육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에 부모의 사회적 지지,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및 진로성숙 각 변인 간의 관계에서 정적인 직접적 영향관계를 가지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모형의 경로계수의 표준화 경로계수(β)와 t 값을 산출하였다. 교육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경로계수(β)

Table 3. Path model results

Paths	β	S.E.	t	p
Parental social support →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446	.010	7.261	.000
Parental social support → career maturity	.175	.007	3.102	.002
Parental social support → career preparation behavior	.011	.022	.150	.881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 career maturity	.838	.062	9.366	.000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 career preparation behavior	.891	.479	3.190	.001
Career maturity → career preparation behavior	-.228	.777	-.731	.465

Table 4.
The direct, indirect, and total effects of relationship between the variables

	Paths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Total effect
Parental social support →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 career preparation behavior	Parental social support →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446*		.446*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 career preparation behavior	.891*	-.191	.700*
	pParental social support → career preparation behavior	.011	.272*	.284
Parental social support → career maturity → career preparation behavior	Parental social support → career maturity	.175*	.374*	.549*
	Career maturity → career preparation behavior	-.228		-.228
	Parental social support → career preparation behavior	.011	.272*	.284
Parental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 career maturity → career preparation behavior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 career maturity	.838*		.838*
	Career maturity → career preparation behavior	-.228		-.228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 career preparation behavior	.891*	-.191	.700*
Parental social support →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 career maturity	Parental social support →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446*		.446*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 career maturity	.838*		.838*
	Parental social support → career maturity	.175*	.374*	.549*

* $p < 0.05$

는 .891($t = 3.190$)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부모의 사회적 지지와 진로성숙은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성숙에 대한 부모의 사회적 지지의 경로계수(β)는 .175($t = 3.102$),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경로계수(β)는 .838($t = 9.366$)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경로모형에서 매개변인으로 설정된 변수들에 대하여 해당 변수가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의 관계를 매개하는지 검증하였다. 매개효과 분석은 효과분해를 통해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를 산출하여 판단하였다. 진로준비행동과 부모의 사회적 지지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의 매개효과가 입증되었다. 부모의 사회적 지지는 진로준비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을 매개로 하여 영향을 미친다. 진로성숙과 부모의 사회적 지지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가 입증되었으나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진로성숙의 매개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진로준비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력이 가장 큰 변인이다.

IV. 논의 및 결론

연구 결과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교육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의 연구들을 지지하는 결과가 나타났으나[5, 10, 15, 16] 다른 변인들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었다. 교원 임용시험은 공정한 경쟁을 통해 이루어지는 만큼 교육대학생들에게는 외적 요소 보다 할 수 있다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 교육대학교는 초등학교 교사를 양성하기 위한 특수 목적대학교로서 입학 전·후 학생들의 대학에 대한 특성의 이해도가 높고, 초등학교 교사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에서 입학 후 부모의 지지는 영향력이 큰 변인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초등학교 교사는 직업에 대한 장래의 미래가 결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진로성숙 또한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아닐 수 있다. 교육대학생은 입학 후 예체능 과목 실기 수업에 대한 부담과 학교 부적응으로 중도탈락하는 경우 대부분 1학년이며, 이를 넘기면 큰 어려움 없이 졸업한다. 현재의 연구대상이 2학년인 점에서 이러한 부분을 유

추할 수 있으며, 1학년 1학기에 조사한다면 그 결과가 다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임용시험의 부담을 가장 크게 겪는 3~4학년생은 진로준비행동이 보다 활발히 이루어지는데, 학년에 따른 진로준비 행동의 차이와 그에 따른 인과모형의 분석도 교육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진로 선택이 매우 가변적인 종합대학생과 다른 교육대학생의 특성을 고려해 이 연구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다른 변인들도 탐색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부모의 사회적 지지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을 매개로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사회적 지지는 진로준비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은 임용시험 준비와 관련해 어학연수, 스펙 쌓기, 취업 준비 과외와 같은 고액의 사교육비가 필요하지 않으며,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이 많은 점 또한 부모의 직접적인 영향이 적게 미칠 수 있는 요인이라 볼 수 있겠다.

셋째, 초등학교 교사를 양성하는 기관은 10개의 교육대학과 3개 종합대학의 초등교육과이나 이 연구는 1개의 교육대학에 한정하여 표집하였다. 교육대학은 심화과정이란 독특한 제도가 있으며, 종합대학의 초등교육과는 소수의 인원과 중등 교과목과의 복수전공이 가능한 점, 대학 문화 등에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교육대학의 특성이 반영되어 있지만, 초등교사를 양성하는 모든 대학의 특성이 고려되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일반화에 대해 조심스런 해석이 필요하다.

넷째, 다른 전공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취업률과 안정된 직업의 특성으로 말미암아 교육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진로교육 및 연구가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 많은 비용이 들지는 않지만 임용시험 영역에서 비중이 큰 전공시험(교육과정)에 대한 준비가 사교육 시장에 맞겨진 상황을 개선하고, 학생들의 진로발달에 대학 차원에서 깊은 관심을 갖을 필요가 있다. 계속해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임용률을 고려하여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도록 임용제도 개선, 진로 개척, 학교생활적응 등에 대해 교육대학에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다섯째, 이 연구에서 활용한 측정도구들은 고등학생 대상 도구를 수정하거나 일반 종합대학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사용된 것들로 특히 진로가 거의 결정된 교육대학생들에게는 어색한 문항들이 있다. 교육대학생들의 진로준비행동 측정도구의 개발과 더불어 지속적인 측정은 대학의 진로지도 정책 수립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연구 결과와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이 연구에서 설정한 변인 간 인과관계 모형은 교육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실증자료를 분석하기에 적합하며 독립 변인과 종속변인 간의 인과관계를 타당하게 예측하였다. 즉 교육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을 설명하는 모형이 개발되었다.

둘째, 교육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었다. 교육대학생들의 교사 임용과 관련한 진로준비행동은 시험 준비와 학점 취득 등의 개인의 노력으로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로 개인의 효능감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밝혀졌다.

셋째, 부모의 사회적 지지는 교육대학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을 매개로 진로준비행동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부모의 지지를 받으며 교육대학에 입학하고 초등학교 교사란 직업에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는 학생이 진로태도와 관련된 변인을 통하여 임용시험 준비에 보다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것이다.

Reference

1. Ahn, S. Y., Lee, Y. H., Yang, A., & Kum, J. H. (2008). Perception of undergraduate environmental education program students of Hangu University on their career prospect and career preparation. *The Environmental Education, 21*(1), 82-96.
2. Bentler, P. M., & Bonett, D. G. (1980) Significance tests and goodness of fit in the analysis of covariance structures. *Psychological Bulletin, 88*, 588-606.
3. Betz, N. E., Klein, K. L., & Taylor, K. M. (1996). Evaluation of a short form of the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cale.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4*(1), 47-57.
4. Blustein, D. L., Walbridge, M. M., Friedlander, M. L., & Palladino, D. E. (1991). Contributions of psychological separation and parental attachment to the career development proces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8*(1), 39-50.
5. Cho, M. S., & Choi, K. S. (2007). A model testing on ego-identity, social support, career decision-making self efficacy, career maturity,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in late adolescence. *The Korea Journal of Counseling, 8*(3), 1085-1099.
6. Chope, R. C. (2005). Qualitatively assessing family influence in career decision making.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3*(4), 395-414.

7. Crites, J. O. (1961). A model for the measurement of vocational maturit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8*(3), 255-259.
8. Crites, J. O. (1965). Measurement of vocational maturity in adolescence: Attitude test of vocational development inventory. *Psychological Monographs, 79*(2), 1-34.
9. Jeong, H. Y. (2010). *A study on major satisfaction and career maturity according to values and self-efficacy of college students majoring in beaut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yungsung University, Busan, Korea.
10. Jin, H. J. (2010). *The influence of parental attachment in college students on their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the mediating effects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emotional intelligenc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11. Kang, J. Y. (2009).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compromise and career-related psychological variables among korean college students: Focused on career attitude maturity, self-efficacy,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nd individualism-collectivism*.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Hanyang University, Seoul, Korea.
12. KEDI Service for Educational Statistics. (2012). Employment statistics. Retrieved May 20, 2012 from www.kedi.re.kr.
13. Kim, B. W. (1997). *Career decision level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the college studen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14. Kim, H. J. (2007). *The influence of college students' major satisfaction and flow experience on career decision efficacy and career attitude maturi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Sungkyunkwan University, Seoul, Korea.
15. Kim, S., & Lee, J. C. (2007). Influence of parent support,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dysfunctional career thought on adolescent career maturity.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19*(2), 393-407.
16. Kim, S. J. (2005). *The influence of career barriers, hope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on the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college studen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Hongik University, Seoul, Korea.
17. Lee, E. K. (2001). *A study on the effect of self-efficacy upon the career development*.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18. Lee, K. H. (1997).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attitude maturity and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korean high school studen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19. Lee, K. H., & Lee, H. J. (2000). The effects of career self-efficacy in predicting the level of career attitude maturity of college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12*(1), 127-136.
20. Nam-Kung, J. (2004). Development and validity of career maturity inventory. *Journal of Education Evaluation, 17*(2), 73-91.
21. Park, J. W. (1985). *A study to development a scale of social support*.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22. Shin, J. L., & Hyun, C. S. (2008). Development and validity of career maturity inventory self-efficacy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The Korean Journal of East West Science, 11*(2), 45-59.
23. Super, D. E. (1955). Dimensions and measurements of vocational maturity. *Teachers College Record, 57*(3), 151-163.
24. Taylor, K. M., & Betz, N. E. (1983). Applications of self-efficacy theory to the understanding and treatment of career indecis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22*(1), 63-81.
25. The Information Service of Higher Education in Korea. (2012). Information of higher education. Retrieved May 20, 2012 from www.academyinfo.go.kr.

접 수 일 : 2012년 8월 1일

심사시작일 : 2012년 8월 8일

게재확정일 : 2012년 9월 5일